

“나눔과 봉사엔 끝이 없죠”...

이광배 회장 (제주섬 꼬라 순례회)



이광배 회장은 ... 1999년 관음불교학교를 수료하고 2002년부터 매월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 어르신 초청 공양올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제주불교문화대학(20기)을 졸업했고 동문모임 무우수(無憂樹)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대 수상(2010년), 분다클럽이 주관한 분다대상(효행부문) 수상(2013년) 등을 했으며 현재 제주섬 꼬라 순례 회장과 제주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엔 ‘절오백 당오백’이란 말이 있다. 제주가 불심이 강한 불국토 섬임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제주인구 60만 가운데 ‘30만’ 정도가 불자라 한다. 물론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다. 그만큼 타지방 못지않은 강한 불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지방 불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토속신앙과 융합된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불자를 찾기가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참 불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 어머니나 할머니가 절에 다녔고 그로 인해 불교에 친근감이 있다면 과연 불자일까.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서 연등을 달면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불자라면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겉으로는 불자라고 내세우더라도 정작 삶에 묻어나는 행동이 비불자적인 요소가 많다면 참불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그야말로 ‘뻗속까지 불자’인 사람이 있다. 바로 제주섬 꼬라(티베트어로 탑돌이) 순례회를 이끄는 이광배(59) 회장이 주인공이다. 이 회장은 특히 웃어른에 대한 남다른 공경으로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면 이 회장은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 어르신들을 초청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잔치’를 벌인다. 어르신들은 나들이를 겸해 맛난 음식에 파스한 정까지 맛보는 이 특별한 날을 한 달에 한번씩 손꼽아 기다린다. 이 회장은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제주서 명문고인 오현고를 졸업했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가정형편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벌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는 등 험겨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죠. 7년여 객지생활서 돈은 모이지 못했지만 이 사회 어디를 던져 놓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단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시 종교는 인생의 힘든 계기가 있어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회장의 어렵고 힘든 객지 생활은 불심에 불을 지피게 만들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 회장에게 서울서 같은 집에 함께 살던 고모부 내외가 매일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고모부 내외가 새벽이면 어깍임이 일어나 <천수경>을 독송하고, 108배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회장 마음속에도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얼마 뒤 이 회장이 몸이 아플 때, 고향이 그리울 때면 조계사를 찾아가 기도하며 시름을 달래기 시작했다.

“고되고 낯선 서울 생활에 만일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건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하루를 멘토로 의지처로 생각하고 정진하다보니 마음속에서 법열감과 자신감이 솟아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불심이 돈독해져갈 시기에 이 회장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왔다. 오자마자 이 회장은 당시 제주도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신행단체인 제주불교법우회에 가입했다. 그리고 고향인근 사찰인 법화사에 조상님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불자로서의 책임을 띄워나갔다.

이 무렵 1989년 이 회장은 생계를 위해 대출받아 식당을 개업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단칸방에 부모

님과 아이 둘까지 살아야 했다. 하루에 겨우 2~3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다. 치열한 생존 경쟁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치열한 노력 끝에 1년여 만에 차츰 생활도 안정이 됐다.

살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 회장에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갈증이 커져갔다. 그래서 1999년 조계종 제 23교구 관음사사 운영 3개월 과정의 관음불교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한 딸을 위해 아버지의 간절한 합격 발원기도를 아침마다 시작했다. 예불문을 시작으로 천수경, 108배를 번갈아가며 했다.

“처음에는 초심자들이 다 그랬듯이 딸의 합격과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 했죠. 하지만 기도를 매일 하다보니 생각이 변했습니다. 나를 깨우기 위한 참회 정진의 108배로부터 범위가 넓어져 이웃에 대한 감사 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가족만 감사던 마음이 점차 우리 주변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웃에 대한 감사 발원으로 바뀌더군요.”

나눔은 타인 아닌 내가 행복한 일

13년간 월 셋째주 목요일 어르신 초청 잔치

최근 백혈병 및 소아암 가족들도 함께 초대

2010년 ‘무우수회 창립’... 도반들과 봉사행

2013년 분다대상 효행 부문 수상자로 선정

제주섬 꼬라 순례 모임을 이끌다

순례 후 사찰서 기도... 모금 활동도 전개

3월 회향 후 4월부터 제4차 순례 다시 시작

내 가족이 아닌 주변 이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제 가족들도 다 각각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며 발전해 가더군요”

큰 딸은 사법고시 도전 3년 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지금은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둘째 아들 도 사촌기에는 방향을 많이 했지만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 지금은 한의사가 됐다. 나를 주변에선 판사 아버지라 추켜 세우지만 이 회장은 늦은 밤, 배달 전 화벨이 울리면 슬관처럼 안전모를 쓰고 오토바이 배달을 나간다. 이런 모습에 지인들은 “판사, 한의사 아버지가 이제 배달은 그만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는 편지를 준다. 하지만 이 회장은 “판사는 내가 아니라 내 딸일 뿐”이라며 “자식을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배달이 지금 나를 있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애들을 성장시켰다”며 지금도 밤늦은 자정까지 배달을 위해 어디든 달려간다.

이런 근면 성실함 덕분에 12년 만에 임대건물을 청산하고 이 회장은 3층 건물을 짓고 가게를 다시 열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굳게 다짐한 게 한가지가 있다. 자신에게 세 삶을 열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회

향하고 싶다는 발원이었다. 그 원력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관음사서 운영 중인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서 매월 맛난 공양 한 끼 올린다는 작은 실천이었다. 그것이 벌써 어느덧 13년째를 맞고 있다. 공양 보시행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백혈병 및 소아암 가족들에게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회장은 제주 양로원처럼 정기적이진 않지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 부모회와 아이들을 초청해 똑같이 보시행을 펼친다.

봉사현장서 만난 강유주 백혈병소아암 직전 부모회장은 “예전에 비해 사회가 팍팍해진 가운데도 선뜻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선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데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누구나 봉사를 하고 싶어하지만 이 회장처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 회장은 이런 봉사행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수행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이 회장은 “태어나면서 죄 없는 아이들이 큰 병으로 고통받는데 작은 공양이나마 정성껏 마련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며 “지금도 병으로 인해 가족과 아이들이 고통 받지만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다보면 슬픔이 격감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 회장에게 나눔이 이렇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객지 생활에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서다.

그런 작은 나눔과 위로들이 이 회장 자신이 자수성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믿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회향의 마음을 먹고, 어르신들이, 백혈병 소아암 가족들이 그리고 가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이 회장을 있게 한 스승이라 생각했다.

이 회장은 “주변의 말씀을 경계 삼아 바른 삶을 살면서 나눔을 실천하다보니 큰 인연으로 돌아왔다”며 “이 귀중한 진리는 모두다 부처님에게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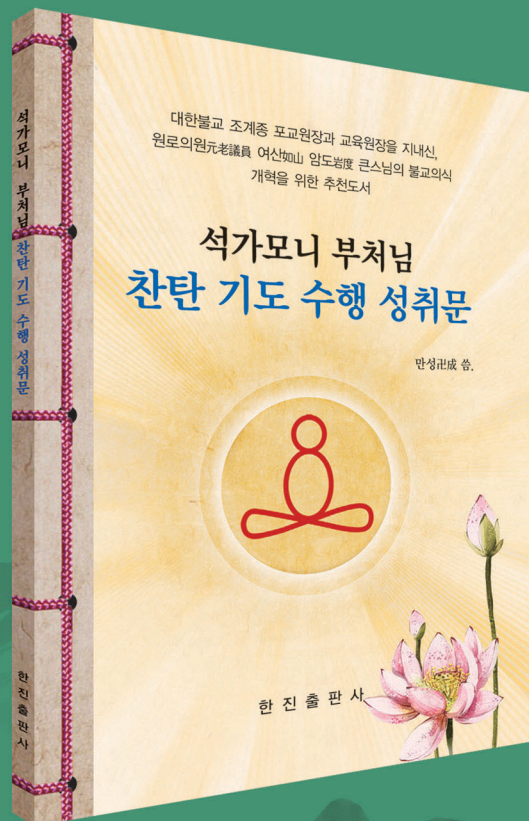
이 회장은 봉사행 뿐만 아니라 교리 공부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봉사행의 근본 원천은 부처님 가르침이며, 또한 그 원동력은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 공부나 교리공부에도 나온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결심이 서자 1년 과정의 제주불교문화대학 문을 다시 두드렸고, 지난 2010년 2월에는 졸업 후 동문모임인 무우수(無憂樹)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도반들과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 회장과 회원들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제주 양로원 재가자를 위한 반찬 배달을 보조하는 때를 겸여 부쳤다. 또한 이 회장 개인적으로는 초록우산을 통해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7년째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 회장의 삶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깃들어서 행과 불행, 그리고 나눔 실천을 위한 봉사행이 연속선상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월 공양을 대접해온 자신의 식당은 2011년 ‘자비’의 집’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내 부모님같은 마음으로 비록 한끼지만 정성껏 준비해 모시고 있다”며 “오히려 어르신들이 맛있게 먹었다며 ‘장사 잘 돼라’는 덕담 한마디가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용기를 얻고 희망찬

읽기만 해도 부처님의 일대기 一代記를 훤히 암기할 수 있다!



큰 스님들의 적극적 후원으로 발간하게 된 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을 지내신,
원로의원元老議員 여산如山 암도岩度 큰스님의
추천도서.

다종교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 천주교에 밀려
쇠퇴일로의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알기 쉬운 혁신적인 의식儀式과
확실하고 정확한 교리 집필.

만성 씀 / 값 8,000원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서점에 있음. 다량주문(010-2465-1357)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매월 장애인·어르신 대상 잔치 열어



이광배 회장은 매일 아침 집에서 108배를 한 뒤 소외 이웃들을 위해 쓰일 돈을 저금통에 보시한다.



제주시 외도동 관제사에서 순례 후 기도정진을 하고 있는 이광배 회장과 1백여 꼬라순례 회원들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본대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광배 회장(왼쪽서 세번째)



어르신들에게 매일 공양을 대접한 자신의 식당이 2011년 '자비의 집'으로 지정됐다. 현판식 장면. 맨 오른쪽이 이광배 회장.

살을 살고 열심히 장사도 하게 되니 내가 어르신들에게 받는게 오히려 더 많다"고 보람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런 다양한 봉사행위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다클럽이 주관한 불다대상(효행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봉사담당계 수상금 전액을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에 다시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변에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제주양로원에 성금을 전달하며 "이 상금은 어르신들 턱턱에 받은 것이기에 원래 주인인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지는 게 맞다"며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 작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겸손해 했다.

최근 이 회장이 봉사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제주섬 꼬라 순례(지도법사 제량 스님, 조천고관사 주지)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제주섬꼬라 순례 모임 창립부터 함께 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회장직도 맡고 있다.

제주섬 꼬라 순례는 제주를 '석탑을 고요히 품은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절집'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꼬라'는 탑이나 절을 시계방향 방향으로 도는 성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티베트어를 말한다. 한라산 역시 오백나한이 섬 제주 불자들에게 숭배하는 탑과 같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걸어서 또는 오체투지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람따라, 길따라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제주섬 꼬라 순례는 3월 22일 조천을 조천리 고관사에서 세 번째 회향법회를 갖는다. 7년 동안 세 차례 회향을 맞은 꼬라 순례는 회향 때마다 백혈병소아암 가족들도 초청해 끼여가는 생생명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순례 때마다 조금씩 모은 성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이 회장은 출발에

앞서 순례자들에게 의미를 하나 더 덧붙인다. 자신의 원력을 담은 순례길이기엔 순례자마다 돼지 저금통(?)을 한 마리씩 사자는 것이다. 매일 순례하는 날마다 보시금을 돼지저금통에 넣고 회향할 땐 돼지 저금통을 털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자는 의미다.

제주섬 꼬라 순례가 단순히 걷기 순례의 차원을 뛰어 넘어 불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순례자들은 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수행 방법을 통해 행복의 원력을 쌓고 있다고 이 회장은 생각한다.

"매일같이 108배로 하루를 열지만 순례란 만큼은 좀 더 특별한 원력을 세웁니다. 생명체가 없는 사물 하나하나도 순례를 다니다보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며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타인을 위할 줄 모르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나와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일 셋째 주 제주섬 꼬라 순례 동참날에 1만 원씩을 적립하기로 한 것이죠. 그 원력이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게 회향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넘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이 회장은 4월부터 4차 꼬라섬순례를 시작한다. "지난 1차~3차 순례 동안 안가본 해안가사찰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역시 절에서 절로 이어지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1백여 안팎의 회원들이 매순례마다 참가하지만, 좀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순례에 동참해 수행과 봉사행위를 함께 펼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자비나눔의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꼬라 순례자들은 특별한 원력도 세웠다. 더 넓은 세상을 통해 해안을 넓히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차례 서울 북한산 내 사찰을 참배하는 돌레길 걷기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난 2013년 만 2년여 만에 도봉산지구

와 연결된 총 20코스, 70km에 이르는 북한산 돌레길도 완주했다.

"꼬라 순례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고향인 제주지역의 사찰을 답사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면 사찰서 스님 법문을 듣고, 느린 걸음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있으면 무한한 외경심이 우러나와요. 풀 한 포기 소중함, 그 자연의 일부가 바로 나임을 느낀 순간이죠. 걸으며 답고 출다고 느낀다는 그것조차 참나일 뿐, 그것이 있기에 내가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도보 순례를 다니는 것도 수행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 회장은 "눈비가 내려도 순례는 멈추질 않습니다. 비바람을 헤치고 걷다보면 결국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낱 왜소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심하게 되고 다른이들과 갈등도 없어지게 되더군요. 사실 우리의 모든 다름 원인이 작은 감정을움서 번지잖아요. 그 마음마저 없애지게 됩니다. 동업중생과 자리타의 정신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처럼 제주섬 꼬라길 순례를 통해 이 회장의 영혼은 깊어진 듯하다. 순례 여정은 이 회장 말대로 구도여정과 같아 크고 작은 깨달음도 그곳에서 주어졌다고 했다.

이제 다시 이 회장은 4월부터 4차 꼬라섬순례를 시작한다. "지난 1차~3차 순례 동안 안가본 해안가사찰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역시 절에서 절로 이어지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1백여 안팎의 회원들이 매순례마다 참가하지만, 좀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순례에 동참해 수행과 봉사행위를 함께 펼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자비나눔의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글=김주열·제주불교이병철 기자

전법일기

신도 행복이 바로 사찰의 행복

서울 도심사찰 주지로 처음 부임해 현재까지 원각사 변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마음으로 지원 해주시는 조력자가 내 옆에 한 분 계신다. 바로 원각사 신도회장이다.

처음 주지로 부임했을 때에는 앞선 여러 사정으로 신도회장은 회장을 고사했다. 도리어 나에게 하소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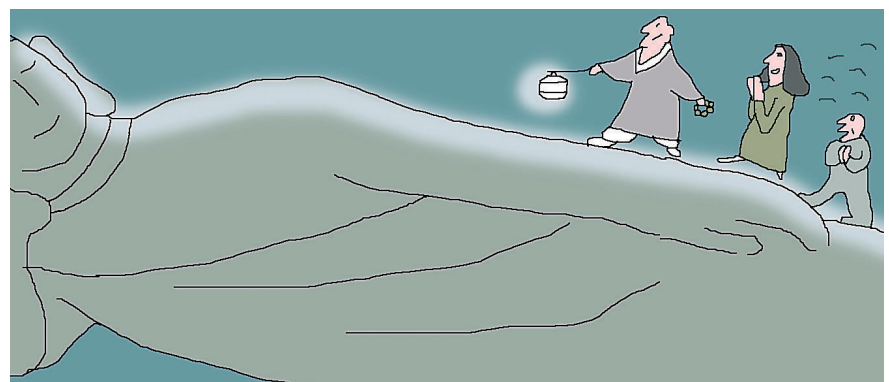
"제가 원각사 발전을 위해 지역 포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 존경받는 우수한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지요."

신도회장에게 간청하고 같음하기를 수차례. 결국 신도회장은 "알았습니다"고 승낙했다. 이후 나는 사찰 사무장과 기도법사 스님과 모여 신도회장을 위한 조출

했다. 10년 전만 해도 신도와 일반인, 관광객들은 다실(茶室)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스님들과 신도들 사이가 좋아보이는가, 나빠보이는가. 아니면 그저 그러한가?

스님과 중무원들, 신도회 임원, 각 신행단체 재가자, 봉사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린 불교인가? 닫힌 불교인가?

앞으로 한국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님들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행자 시절 부처님께 발원하고 맹세했던 초발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를 내려놓는 마음에서 남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이



그림·박구원

한 이벤트를 구상했다.

7월 18일은 원각사 신도회장의 생일이다. 사찰 사정으로 전년도 생일을 챙겨드리지 못했으니 올해에는 신도회장에게 이벤트를 통한 추억을 안겨드리자는 계사중의 공의였다.

전날 푸짐한 과일 바구니, 케익, 장미꽃,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라고 금일봉까지 단단히 준비를 했다.

D데이. 새벽녘에 신도회장의 집을 찾아갔다. 기도법사 스님과 나는 숨어있었고, 사무장이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신도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 백배왔습니다"라고 개구지게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도회장이 나오자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내밀고 "생신 축하합니다"를 외쳤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신도회장은 이내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며 수줍어했다. 그런 신도회장을 보며 나 또한 큰 보람을 느꼈다.

처음 주지로 부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맞춤형으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로 마음 먹었다. 대부분 절에 찾아오시는 신도들을 보면 좋은 이야기, 인생사 고달픈 이야기, 대부분 하소연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원용화합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바탕으로 받아 드린다면 곧 부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

원각사의 다실에는 언제든 신도들이 쉽게 찾아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문턱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다.

요즘 나의 고민은 "신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해 드릴 수 있을까"이다. 그러면서 "원각사 대웅전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만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부처님과 주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충고한다. 감사하는 참나를 찾아가는 오늘이 자리에 머무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자들 곁에 머물도록 오늘도 힘차게 목탁소리에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새 내기 주지 티는 좀 벗어났는지 모르겠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행복이 가득한 효소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습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습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들습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 15g의 기적
- 면역력 업그레이드
- 세계 최초 씹어먹는 효소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온 몸이 따뜻해지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 6년근 홍삼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용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지 효소환 15g×90환. 60만원

* 식품법 제11조에 의하여 탁월한 효능과 임상을 전하지 못합니다.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 최고 소득 작물로서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으므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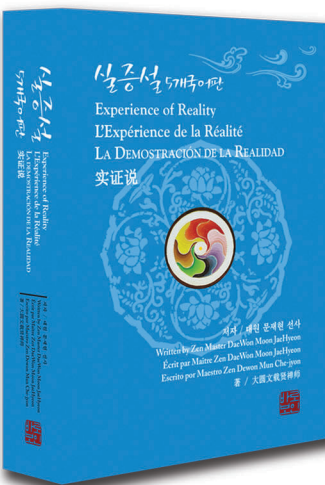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숙기, 발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곡)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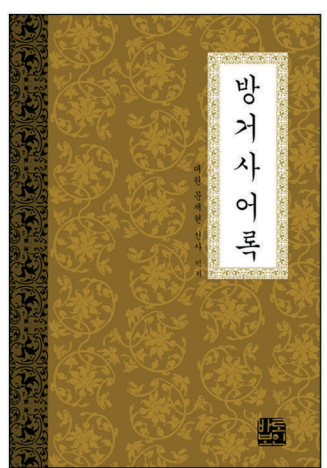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